

특별취재

부안군 인구늘리기 정책 실효 미미

부안군의회 김형대의원 강력한 질타... “2014년에 비해 무려 1000명 감소”



김제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 15명 자매결연도시 제주도 중앙동 방문

김제시 백구면(면장 선강식)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윤중)는 최근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발전 방안 논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인 제주 서귀포시 중앙동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상호 우호협력방안증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지역의 특산물 홍보 및 우수프로그램 정보교류 등 주민자치센터 간 우의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제시 백구면과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15년 7월 22일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상호교류를 통하여 유대감이 깊어졌고 제주도민에게 김제를 알릴 수 있는 계기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중앙동과의 자매결연을 더욱 견고히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불법주정차 단속 소통 알리미 서비스' 큰 효과 거둬

부안군이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불법주정차 단속 소통 알리미 서비스'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소통 알리미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구간에 주정차 했을 경우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 번호로 단속요고 문자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단속구역임을 알지 못한 채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에 앞서 차량이동을 위한 유대해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안군이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500여 명 이상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전년대비 50% 가량 감소하고 불법주정차 민원이 60% 해결된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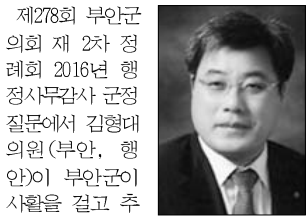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소통 알리미 서비스는 읍면 사무소나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서비스를 신청해 깨끗한 교통질서 유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어르신들 시민건강대학 수료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지난 25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민건강대학 수료식을 보건소 회의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시민건강대학은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2주에 걸쳐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는,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UP, 문제해결능력, 나눔의 리더십 스트레스 Down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나눔의리더십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따른 수면불고 가치있는 노후의 삶을 영위하도록 한 중급업그레이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운영 되었다.

바래난 보건소장은 먼저 시민건강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원광보건대학 교수님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과 영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열정롭게 수료하시는 어르신들께 축하의 인사 말씀을 전하며, 가족이나 이웃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고 칭찬하며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형대의원은 김종규 부안군수가 인구 늘리기 정책이 실효가 없다며 강한 질타를 했다.

김 의원은 민선 6기 김종규 부안군수 취임 당시 2014년 7월말, 부안군 인구는 57,909명 이었는데 2016년 10월말 현재 56,901명으로 무려 1,008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군

의 인구정책이 헛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또 김종규 부안군수가 2014년 7월 취임 이후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은 천명하고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운동, 귀농 귀촌 활성화, 청년층 유입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 했다고 치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형대 의원은 김종규 부안군수가 말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은 오히려 인구를 감소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며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게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심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구 정책과 관련 마련한 원인 분석과 기대보다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며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 답변에는 그간 귀농귀촌정책 나눔이근농장학급 300억 확보, 내 직장 내주소 갖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과 조속한 시일 내에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부안군 전입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저 출산 및 인구 등 관련 정책을 전담부서를 설치 인구 늘리기 정책을 최우선 현안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번 선거에서 최일호 위원장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으며, 수석부위원장 윤남기(김제시청), 부위원장 박희정(진안군청), 회계감사위원장 김형국(전북도청), 사무총장 홍순영(정읍시청)씨가 각각 선출됐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에 최일호 위원장 당선

성과평가제·퇴출제 폐지

최일호 위원장(55, 제7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9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최일호 위원장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으며, 수석 부위원장 윤남기(김제시청), 부위원장 박희정(진안군청), 회계감사위원장 김형국(전북도청), 사무총장 홍순영(정

읍시청)씨가 각각 선출됐다. 당선자 최일호 위원장은 성과평가제 및 퇴출제 폐지, 직급체계 개선 6급 자동 근속승진 등 총연맹과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도민과 상생하는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실현과 각 시군 위원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군간의 공정한 인사교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통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위원장으로 당선된 최일호 위원장 주요 약력으로는 제6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역임 및 전국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및 현재 제7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읍쌀 소비촉진 위한 시민운동 전개

생산자·소비자가 뭉쳐 시 2청사 대강당에서 대회 가저

정읍시는 우리쌀을 지키기 위해 지난달 우리쌀 생산 소비촉진 간담회에 이어 28일 우리쌀 소비촉진 대회를 정읍시 제2청사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쌀소비 촉진 대회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해 유진섭 시의회 의장 및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여성단체, 요식업체, 소비자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정읍시 생산자와 소비자 대표가 쌀 소비 촉진 결의문을 통해 전국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정읍쌀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우리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생기 정읍시장장은 "정읍시민 모두가 관심과 참여로 고

품질 정읍쌀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우리쌀 애용 범시민운동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출현인들의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매결연도시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정읍쌀 뿐만 아니라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건축사와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

정읍시가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에 건축 민원 상담실을 설치, 건축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하반기 건축 행정 건설화 대책 일환으로 위한 건축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지도 점검과 병행해 대한건축사협회 정읍지회건축사와 함께 건축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실에서는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건축사가 직접 관계법규 설명과 시공 요령 등 설계 단계부터 완공까지 전반적인 건축 과정에 대한 행정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시는 "상담실 운영으로 민원인들이 여러 관련 부서를 거쳐 신청 절차

김제경찰서 폭설 교통관리대책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이날 28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폭설, 결빙 등 기상악화로 인한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겨울철 폭설대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김제경찰서는 김제시청 등 도로관리청과 제설대책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습결빙구간에 모래 적재함을 비치하고, 제설장비 48대, 모래주머니 2만개, 염화칼슘 2,167톤, 소금 9000톤, 모래 1,370투베를 확보했다.

이 물품들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청도리 고개등 폭설 취약구간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관은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김제시 평생학습관, 고3위한 학습교실

커피바리스타, 드론,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김제시 평생학습관은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그간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평생학습관은 수험생 학습시간을 활용하여 고3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수험으로 인해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취미활동 등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단기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집에서도 맛있게 즐기는 커피바리스타, 무인항공시스템 드론 및 보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샵프 네일 배우기, 사회초년생 메이크업 강좌 등 4과목 90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육기간은 다가오는 12. 12일부터 2017. 2. 17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 기수별 효율적 운영을 할 계획이며 1기수 당 5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수강료는 무료(재료비 별도)이다.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평생학습관 063) 540-2876~2880으로 하면 된다.

양운업 인재양성과장은 "평생학습교실을 통해 고3 청소년들이 대학진학 이전에 다양한 취미활동 등을 접하고 수험기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설립해야”

김제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어져

김제시의회의(의장 나병문)는 28일 제 20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복남 의원, 김영자 의원, 박두기 의원 등 의원 3명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날 김복남 의원은 청소년 역량개발과 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및 꿈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제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 발전을 위해 시립 농악단 설립도 촉구했다.

김영자(가산거구) 의원은 김제-전주 통합론은 가장 먼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따져보고 주민들이 통합을 원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며 자율적 통합의 적합 요건을 갖춘 후

거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불거진 통합론은 자칫 주민들간의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므로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전까지는 김제-전주 통합론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두기 의원은 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의 생산·공급 불안은 가격 폭락과 폭등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극에 달해 지속적인 농업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을 살피고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 보장 농산물 선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가정에서 요리시 주방 환풍기 작동해야”

정읍시 주방 관리수칙 당부

정읍시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반드시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렌지후드)를 작동하는 등의 관리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요리할 때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이 발생해 반드시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폐된 실험주방 주방에서의 요리시 재료별 오염 물질 발생량을 보면, 요리기구와 재료를 치우지 않으면 오염 농도가 2290µg/m³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삼겹살 1380µg/m³, 계란 후라이 1130µg/m³, 볶음밥 183µg/m³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미세먼지(PM2.5)의 '주의보' 기

준인 90µg/m³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리 후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 15분 내로 평상시 수준의 농도로 낮아졌다.

또한 평상 시 주방 환풍기(렌지후드)의 청결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요리를 시작하기 전 환풍기(렌지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어두며, 요리할 때 자연 환기를 함께하면 오염물질을 제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리가 끝난 후에도 창문을 바로 닫지 말고 30cm 정도 열어 최소 15분 이상 자연환기를 해야 하며, 요리기구와 재료를 치우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계속 방출 되므로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바닥에 가리워진 먼지가 다시 날리지 않도록 물걸레 등으로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 좋다. /정읍=김대환 기자